독일 톤세제에 대한 부처이견에도 지속 시행키로

독일 연방감사원 세원감소 방지위해 폐지 주장

톤세제도 시행 지속여부를 놓고 독일 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행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nungshof)이 톤세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연방감사원은 톤세제 때문에 2004년도의 경우 10억유로에 달하는 세원이 증발해 버렸으며 선박펀드 투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세원감소에 일익을 했다며 강력 비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독일선주협회(VDR)는 세계해운의 흐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그나마 톤세제가 있으니 망정이지 그마저 없으면 독일 선대가 한척이라도 남아 있겠냐며 강력 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낭비에 대한 연차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톤세제가 당초의 도입취지인 해외치적방지효과도 없고 구주선원 고용증가효과도 없다며, 특히 BBC선박도 톤세제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국선대의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이 크게 희석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연방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통부는 톤세제 유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연방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도입된 독일 선박톤세제도는 독일 해운력 신장을 위한 전임 개루하드 슈뢰더총리의 주요 해운정책이었다.

한편, 독일 내각의 신임 해운정책조정관으로 지난 1977년 미스 독일출신, 52세의 기민당 소속 Dagma W?hrl가 임명되었다.

프랑스선급 BV, 독일선급 GL 인수합병 추진

프랑스선급이 독일선급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프랑스선급인 Bureau Veritas(BV)가 독일선급인 Germanischer Lloyd(GL)인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양측은 M&A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GL이 이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뜬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 M&A건이 성사된다면 규모면에서 1, 2위 선급의 합병으로 초대형 선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GL 인수대금으로 BV가 제시한 금액이 GL의 연간 세전이익의 9배에 이른다고 한다. GL에 대한 M&A는 과거에도 BV 및 DNV가 시도했다가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GL은 현재 입급선박이 6,000여척, 6,000여만G/T이며 입급대기중인 물량도 1,000척 1,700만GT에 달한다. BV는 2005년도 매출 16억5,0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GL은 3억2,000만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스위스계 초대형 검인업체 SGS는 지난 10월 BV의 지주회사인 Wendel Investissement사에 30억유로에 BV인수를 제안했었다고 한다. 독일의 한 소식통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번 BV의 GL M&A 시도는 자사 가치를 높이려는 몸집불리기 시도라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